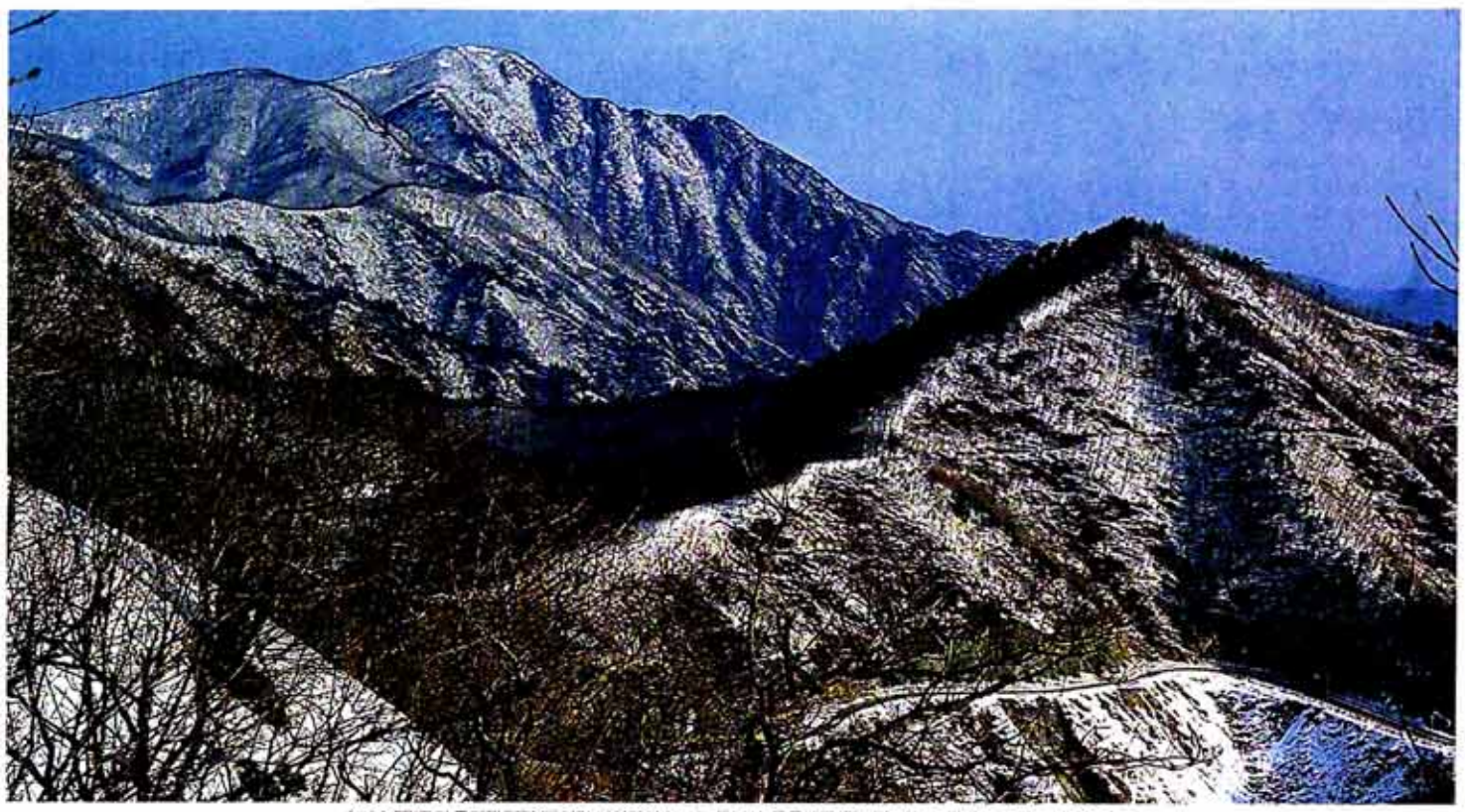
두타정상 오르니 동해바다 눈앞에 넘실



◇두타산 정상 오름길. 키 작은 참나무와 철쭉이 어우러져 있다.



◇선승(禪僧)의 두타행(頭陀行)처럼 거침없이 오르는 두타산. 무릉계곡 쪽 기슭에는 불퇴전의 고집도 서려있다.

백두대간 속으로 〈30〉

댓재→두타산→청옥산

선경 무릉계곡 한때 이승휴거사 은거
관음암·금란정 인간-자연 조화 극치

초록 물감으로 솔잎을 그리고, 빨간 물감으로 단풍잎을 물들인 다음, 파란 하늘에 흰구름 하나 띄우고 나면 미술 시간이 훌쩍 지나가곤 했다. 그런 다음, 별 생각도 없이 검정색으로 변한 붓 씻은 물을 창문 너머로 쏟아버리곤 운동장으로 달려나가, 방금 내가 그린 수채화의 풍경 속에서 뒹굴곤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학교에 들어가고 보니, 영어나 한문과 같은 낯선 과목도 있었다. 호기심 반 즐거움 반으로, 또 별 생각 없이 한자와 영어 철자를, 그림 그리듯 적고 노래 부르듯 외우곤 했다.

그런데 문제는 한자 공부였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천자문의 첫 네 글자, 천지현황(天地玄黃). 네 글자로 이루어진 천자문 250구의 첫 구절이 너무나 황당했던 것이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니. 뒤엣것은 알겠는데 앞엣것은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아무리 봐도 하늘은 파랗기만 한데.

두타산으로 오르는 아침, 아직 산이 깨어나기 전, 하늘빛이 수상했다. 그러나, 산허리에 올라서고부터는 하늘도 파랗게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하늘의 빛깔을 일러 '검다'고 하는 까닭을, 그 '묘한 검음' 속에서 모든 존재가 비롯됨을 어렴풋이 나마 알 것 같다.

두타산과의 첫대면은 댓재(810m)를 넘는 바람에 얼굴을 맞기는 일로 시작된다. 몸집 큰 바람이지만 그리 싫지는 않다. 어느샌가 바람의 올은 한결 부실해졌고, 환강하게 버티던 눈도 상당히 가라앉아 있다.

황장산(1,059m)에서 흘러내린 백두대간이 두타산(1,352.7m)을 오르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고갯마루인 댓재. 삼척시 미로면과 하장면 사이에 걸터앉은 고개로, 태백 산간지방과 동해를 이어주는 424번 지방도로가 지나는 곳이기도 하다.

댓재 북쪽 언저리에 모신 두타산신(頭陀山神)께 인사를 올리고 검음을 올긴다. 눈 위에 새겨진 앞서 간 발자국이, 하얀 천 위에 수놓인 꽃인 양 곱다.

두타산(頭陀山) 오름 길은 까탈스럽게 가파르지도, 그렇다고 자부할 정도로 밋밋하지도 않다. 산 이름 그대로, 나아감에 걸림없는 선승(禪僧)처럼 거침없이 올라 붙곤 솟았다가 사방 산천 경계를 휘둘러 보고는 또다시 오르기를 서너번 반복한다. 그 오름길의 백미는 정상 직전. 군데군데 무리지은 철쭉과 키재기를 할 정도로 몸집이 작은 참나무 숲 사이로 길게 이어지는 길이다. 시야는 걸림없이 하늘을 향하건만 걸음은 모든 기운을 다 모아야 할 정도로 힘겹다.

그러나 정상은, 오르는 동안의 힘듦을 순식간에 잊게 할 만큼 넉넉하고도 편안하다. 조망 또한 탁월하여 서쪽으로는 청옥산(1,403.7m)이 좋은 이웃처럼 정겹게 다가서고, 동쪽으로는 동해 푸른 물결이 온갖 시름을 거두어 가는 듯하다. 더욱이 이곳에서부터 청옥산을 향하는 길의 동쪽 기슭으로는 그 이름도 근사한 무릉계곡이 펼쳐진다. 범부에게도 신선의 길을 허락하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청옥산을 향해 발길을 옮기기 전 다시 한번 사방을 둘러 보자니 박새 한 마리가 눈길을 잡는다. 저도 소리내며 움직이는 것들이 그리웠을까, 조금의 경계심도 없이 모진 인간에게도 곁을 주는 그 모습이, 한 순간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두타산에서 청옥산을 향하는 길은 그리 힘들지 않다. 급히 내려섰다가는 커다란 기복없이 이어지는 능선이 군더더기 없는 자태의 청옥산을 들어올린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정상에 닦인 헬기장은 청옥이라는 고운 이름에 생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청옥산에서 연칠성령이라는 작은 고개까지는 마냥 허리를 낮추는 길. 군데 군데 보호수목임을 알리는 표식이 붙은 주목과 눈맞춤 몇번 하고 나니 연칠성령에 닿는다. 새들도 둥지로 깃들 시간이다. 우리도 그들처럼 눈을 헤쳐 작은 둥지를 만들고 내일이라는 시간의 알을 품는다.

연칠령에서 고적대(1,353.9m)까지는 발끝과 손끝의 짜릿함까지 즐길 수 있다. 마치 돌탑을 쌓아올린 듯한 암릉을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위의 놓임새가 손과 발만으로 오르기에 충분할 만큼 절묘하다. 기분 좋은 긴장 상태에서나 느낄 수 있는 산꾼의 일체감을 만끽할 수 있다.

고적대의 조망도 참으로 빼어나다. 솜씨 좋은 석수가 쌓아올린 돌탑 같은 암릉의 형상 만큼이나.

고적대를 내려서서 무릉계곡으로 하산을 시작한다. 깎아지른 듯한 비탈을 흘러내리며 길을 찾아보지만 눈으로 덮인 발길의 흔적은 희미한 옛 기억 같다.

길 더듬기를 포기하고 산줄기의 흐름을 따르니 지금은 이름도 알길 없는 옛 절터에 닿는다. 이곳에서부터는 계곡을 따라 흐른다. 얼음장 밑을 흐르던 계곡물도 군데군데 얼굴을 내밀고 있다. 겨울이 몸을 틀고 있는 모습이다.

두타산과 청옥산이 어깨를 겯고 골골샅샅이 절경을 빚어놓은 무릉계곡. 달리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것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과연, 고려 충렬왕 때 율바른 정치를 곧은 말로 이르다 파직 당한 이승휴가 이곳에 몸을 숨기고는 스스로를 두타산거사라 부르며 제왕운기를 지을 법했고, 조선의 명필 양사언이 필적을 남기지 않고는 못배겼을 것 같기도 하다. 또한 용추폭포와 학소대, 호암소, 무릉반석과 같은 가경에 짝한 관음암과 삼화사, 금란정 등도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일러 준다.

산행이 끝나면 저절로 만나게 되는 삼화사는 무릉계곡의 얼굴 같은 절이다.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11년(642)에 자장 스님이 창건했다는 천년 고찰로, 보물 제1277호인 삼층석탑과 보물 제1292호인 현조노사나불좌상이 있다. 1979년에 쌍용시멘트 공장에 자리를 내어 주고 지금의 자리로 이건한 바람에 옛 모습을 잃은 것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6년만에 320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하면
누구나
환하게 열린 깨달음의 길
그 길에 우뚝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견본모델 가로 340cm × 세로 240cm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성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법보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 보배속의 보배 : 룸비니 동산에 있는 마야템플의 살트리나무로 만든 염주(佛眼珠)를 내장했다. 살트리나무는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출산할때 잡았다는 나무다.

※ 장경각은 사찰(포교당)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집무실용 세가지가 있습니다.
※ 장경각 가격은 주문사양에 따른 상담가로 결정됩니다.